해외출장 결과보고

출장명: 중국 축산물 수급 실태와 오리고기 한국 수출 여건 조사

1. 출장 목적

○ 중국은 세계 최대 축산물 생산·소비시장으로, 생산·소비·수입 변화가 국제 축산물 수급과 가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입가격과 물량 확보 여건에도 영향을 미침.

- 특히 중국은 모돈 사육 마릿수를 핵심 조절지표로 설정하고, 자돈·비육돈 등 생산단계별 지표를 함께 모니터링하여 생산 시차에 따른 돼지 수급을 관리하고 있음. 이에 중국의 자료수집·수급 전망·조기경보 및 정책 대응방식을 조사하여 국내 축산관측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중국은 주요 사료곡물 수요국이자 축산업 규모화·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 중국 축산업의 생산기반 변화가 국제 사료가격과 축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파악하고자 함.
- 한편 최근 국내 오리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중국산 열처리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 오리산업의 생산·도축·가공·유통·소비 및 수출 구조를 조사하고 국내 오리산업의 수급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출장을 통해 중국 축산물 수급과 정책, 돼지 수급예측체계, 오리산업 구조를 현지 조사하여 국내 축산관측의 해외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수급 전망 및 오리산업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출장기간 및 출장자, 출장지

○ 출장기간: 2026. 10. 5.(월) ~ 10. 8.(목) 〔3박 4일〕

○ 출 장 자:

부서명	직급	성명	비고
농업관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형우	중국(북경)
	전문연구원	김태환	

3. 출장일정

일시	장소	방문 기관	수행 업무
10월 5일 (월)	인천-중국 (북경)	○ 인천(ICN) 12:50 → 북경(PEK) 14:00 [OZ0333]	
	오후 (16~18)	○ **대형 소매유통업체 치셴마트 현지조사**	○ 축산물 및 간편·즉석조리 제품 구성 조사 ○ 신선육·가공육의 포장 및 판매방식 파악 ○ 징둥(JD) 공급망을 활용한 신선식품 조달·매장 운영 방식 조사
10월 6일 (화)	오전 (09~12)	○ **중국 농업농촌부 축산국 (축목업사) 업무 간담회**	○ 중국 축산정책 현황 조사 ○ 축산물 수출 확대 가능성 논의 ○ 축산물 경영비, 생산비 조사 ○ 식품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
	오후 (13~15)	○ **대형 소매유통업체 허마셴성 현지조사**	○ 축산물 소매가격 및 제품 구성 조사 ○ 중국산·수입 축산물 원산지 및 판매 형태 파악 ○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축산물 유통 방식 파악
	오후 (15~18)	○ **중국축목업협회 업무협의회**	○ 중국 축산업 현황과 수급동향 파악 ○ 중국 내 육류 소비동향 파악 ○ 가축 질병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 중국산 축산물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논의

10월 7일 (수)	오전 (09~12)	○ **중국농업과학원 농업정보연구소 업무협의회**	○ 주요 축산품목 모니터링·조사 기법 논의 ○ 중국 축산물 수급의 향후 전망 ○ 축산물 수급 전망 시 주요 고려요인 논의 ○ 중국 축산물 수급의 국제시장 영향 논의
	오후 (16~18)	○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업무협의회**	○ 주요 축산물의 생산능력 조절 및 수급 안정 정책 파악 ○ 돼지 생산능력 조절 및 모돈 사육규모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논의 ○ 축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자 대응 및 사육의향 변화 파악
10월 8일 (목)	오전 (09~12)	○ **성푸 샤오관시장(재래시장) 현지조사**	○ 축산물 판매 품목 및 소매가격 조사 ○ 신선육·가공육 판매 형태 진열 방식 파악 ○ 전통시장 내 축산물 소매유통 구조 및 소비 형태 파악 ○ 대형 소매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의 축산물 판매방식 비교
	인천-중국 (북경)	○ 북경(PEK) 15:30 → 인천(ICN) 18:30 [OZ0334]	

4. 출장 결과

4.1. 중국 주요 축산물 수급 동향

○ 중국 육류 생산규모, 한국 대비 40배 이상

-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축산물 생산국으로, 2024년 돼지고기·쇠고기·가금육 생산량은 약 9,145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약 219만 톤보다 약 42배 많은 수준임.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5,706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약 50배, 쇠고기는 779만 톤으로 약 24배, 가금육은 2,660만 톤으로 약 36배 수준임. 국가통계국
- 특히 중국의 육류 생산에서 돼지고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4년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체 돼지·소·양·가금육 생산량 9,663만 톤의 약 59%에 해당하며, 가금육도 2,660만 톤으로 전체 생산의 약 28%를 차지함. 국가통계국
- 이처럼 중국의 육류 생산규모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 내 생산량 변화는 자국 수급에 그치지 않고 수입 수요 변화 등을 통해 국제 축산물 수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한국-중국 주요 축산물 생산량 비교(2024년 기준)**

단위: 만 톤

구분	한국 생산량	중국 생산량	중국/한국
돼지고기	113.2	5,706	약 50배
쇠고기	32.1	779	약 24배
닭고기	61.8	가금육에 포함	-
오리고기	12.2	가금육에 포함	-
전체 가금육	74.0	2,660	약 36배
4대 육류 합계	219.3	9,145	약 42배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5」, 중국 국가통계국 「2024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공보」.

○ 중국의 육류 소비는 돼지고기와 오리고기 비중이 높은 구조

- 1인당 육류 소비량을 비교하면,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를 합한 소비량은 한국이 약 62.5kg, 중국이 약 66~70kg으로 중국이 다소 높은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축종별 소비구조에는 차이가 있음. 중국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약 40~42kg으로 한국(30.0kg)보다 약 1.4배 많고, 오리고기도 6.2kg으로 한국의 약 2.4~2.6배 수준임. 반면 쇠고기는 한국이 14.9kg으로 중국의 약 7~8kg보다 많으며, 닭고기도 한국이 15.2kg으로 중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이에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돼지고기와 오리고기의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육류 소비구조를 보이며, 특히 돼지고기는 생산과 소비 모두 중국 축산물 시장에서 핵심적인 품목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중국 주요 축산물 1인당 소비량 비교(2024년 기준)**

구분	한국	중국	중국/한국
쇠고기	14.9kg	약 7~8kg[1]	약 0.5배
돼지고기	30.0kg	약 40~42kg[1]	약 1.4배
닭고기	15.2kg	약 12~14kg[2]	약 0.8~0.9배
오리고기	약 2.4~2.6kg[3]	6.2kg	약 2.4~2.6배
4개 육류 합계	약 62.5kg	약 66~70kg	–

주1) 한국과 중국의 소비량은 2024년 기준임. 중국 쇠고기·돼지고기는 생산·수입·수출 등을 고려한 1인당 소비 가능량 기준의 추정치로, 중국 국가통계국의 가구소비량과는 통계 개념이 다름.
2) 중국 국가통계국의 2024년 가금류 1인당 가구소비량은 12.52kg으로, 닭고기뿐만 아니라 오리 등 기타 가금류를 포함하며 외식 소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3) 한국 오리고기는 KREI의 2024년 전망치인 1인당 2.41kg을 기준으로 약 2.4~2.6kg 수준으로 제시함.
4) 한국의 쇠고기 14.9kg, 돼지고기 30.0kg, 닭고기 15.2kg은 KREI 자료이며, 중국 오리고기 6.2kg은 중국 국가수금산업기술체계 자료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5」, 중국 국가통계국 「2024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공보」, 중국 국가수금산업기술체계 「2024년 수금산업 및 기술발전 보고」.

○ 중국은 오리고기 세계 최대 생산국

- 중국 국가수금산업기술체계의 23개 주산지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육용오리 출하량은 43억 8,200만 마리로 전년보다 3.9% 증가하였음.
- 다만 육용오리 생산액은 1,160억 위안(한화 약 24조 8백억)으로 오히려 9.6% 감소하였음. 즉, 생산량은 늘었지만 가격 하락으로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감소함.

4.2. 현지 소매유통 조사(치셴마트, 허마셴성, 성푸 샤오관시장)

4.2.1. 치셴마트

○ 치셴마트는 징둥(京东) 계열의 신선식품 중심 소매유통업체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주문 및 배송을 연계한 유통방식을 운영하고 있음. 이번 현지조사에서는 돼지고기와 오리고기 등 축산물의 판매 형태와 제품 구성, 신선육 및 가공육의 포장 및 진열방식 등을 조사함.

- 매장 내 축산물은 돼지고기, 쇠고기, 가금육 등 축종별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신선육뿐만 아니라 냉동육, 가공육, 간편조리제품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음.
- 신선육은 부위별,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소포장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가 조리 목적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 용이한 구조였음.
  * 국내산 삼겹살과는 정형 및 전처리 방식 등의 차이와 행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가격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치셴마트의 삼겹살 판매가격은 19.9위안/kg(약 4,000원)으로 국내 삼겹살 소비자가격(약 30,000원/kg)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축산물을 활용한 양념육 및 간편조리제품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어 원물 중심에서 가공 및 간편식 중심으로 축산물 소비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튀김, 구이 등 축산물을 활용한 델리코너를 운영하여 다양한 소비방식에 대응하고 있음.
-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배송 거점으로 활용하여 매장 판매와 온라인 주문을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남.

○ 치셴마트는 징둥의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을 연계하여 신선식품 주문-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장이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문의 준비 및 배송 거점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 온라인 주문자료를 통해 소비자의 품목별 구매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축산물 소비 변화 모니터링에도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축산관측에서도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량, 가격, 할인행사 등 소비단계 정보를 활용할 경우 단기적인 수요 변화를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치센마트 매장 입구



돼지고기(삼겹살) 판매대



돼지고기 부분육 판매대



냉장 가금육 부분육 판매대



간편조리식품(돼지고기 만두) 판매대



즉석조리 육류 판매대



4.2.2. 허마셴성

○ 허마셴성은 신선식품 판매와 온라인 주문 서비스를 연계해 운영하는 대형 소매유통업체로, 오프라인 매장이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주문상품의 준비와 배송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치센마트와 유사한 유통 특성을 보임.

- 매장 관리자에 따르면 최근 양념육과 간편조리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제 매장에서도 신선육 외에 양념육·간편조리제품 등 다양한 형태의

축산물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음.

- 축산물은 소포장 제품의 비중이 높고, 부위별 신선육과 함께 소비자가 바로 조리하거나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조리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선식품 매장과 온라인 주문시스템을 연계하여 소비자가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음.
- 특히 온라인 주문을 전담하는 직원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매장에서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상품을 준비하는 등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주문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음.
- 이러한 운영방식은 매장이 단순한 판매공간을 넘어 온라인 주문 처리와 배송을 지원하는 물류 거점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유통방식은 소비자의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오프라인 매장의 기능을 상품 판매에서 주문 처리와 배송 지원까지 확대하는 특징을 보임.

유기 흑돼지 삼겹살 제품



흑돼지 삼겹살 브랜드 제품



돼지 부산물(간) 제품



돼지고기(갈비) 브랜드 제품



4.2.3. 성푸 샤오관시장

○ 성푸 샤오관시장은 베이징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채소, 과일, 육류, 수산물 등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음. 대형마트나 온라인 플랫폼과 달리 소비자가 상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수 있는 지역 소매시장 성격이 강함.

- 시장 내에서는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농수산물이 함께 판매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식재료 구매처 역할을 하고 있음.
- 대형 소매유통업체와 비교할 때 포장·브랜드화된 제품보다는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이 특징임.
- 온라인 및 대형 유통업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신선도 확인, 소량 구매, 가격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지역 기반 재래시장이 일정한 소비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중국의 축산물 소비동향을 파악할 때 대형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의 판매가격, 부위별 상품구성, 신선육 판매 형태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다만 대부분의 육류 판매대는 보관과 진열 과정에서 냉장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위생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양고기 판매 매장



돼지고기 판매 매장



돼지고기 판매대



돼지고기 판매대



가금육 판매대



계란 판매대



4.3. 중국농업과학원 농업정보연구소

면담자: 朱增勇, 张莉, 黄亚坤, 陆佳, 林挺, 李锦

○ 농업정보연구소는 돼지, 소, 가금류를 중심으로 생산 및 시장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축산물 수급 관측과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연구 결과는 단순한 시장 전망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의 축산업 발전, 수급 조절 및 무역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농업농촌부의 축산 관련 정책과제뿐만 아니라 상무부, 발전·개혁 관련 부처의 정책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축산물 수출입 및 관세정책과 관련한 분석도 수행한 경험이 있음.
- 유럽과의 농업 관련 기준 연구를 비롯하여 아일랜드,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덴마크 등과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돼지고기 수급 상황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 돼지와 관련해서는 주로 생산성 향상과 수급통제에 관한 정부 과제에 참여하고 있음.

○ 중국의 돼지 관측은 하나의 기관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농촌부 산하 여러 기관이 생산, 사료 등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 돼지의 사육 및 생산 관련 자료는 축산 관련 전문기관이 관측하고 있으며, 사료 등 생산투입 요소는 별도의 담당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음.
- 생산·투입·시장 관련 정보가 각각의 전문기관에서 생산된 이후 이를 종합하여 돼지 수급상황을 판단하고 있음.
- 돼지 생산 관련 조사는 축산 관련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며, 일정 규모 이하(연간 출하두수 500두 미만) 농가는 표본조사, 일정 규모 이상(연간 출하두수 500두 이상)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사육동향을 파악함.
  * 대규모 농가의 생산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규모화 농가를 전수관리함으로써 전체 생산동향을 비교적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중국은 향후 돼지고기 공급 및 가격을 판단할 때 하나의 지표에 의존하기보다 생산단계별 다양한 지표를 함께 활용하고 있음.

- 주요 지표로 모돈 사육 마릿수, 자돈 마릿수, 비육돈 마릿수, 사료 투입량,

월별 출하량, 도축량 등이 활용되고 있음.

- 모돈 사육 마릿수 변화가 자돈 생산과 비육과정을 거쳐 실제 도축으로 연결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생산단계의 정보를 이용하여 향후 공급상황을 순차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사료 투입량도 실제 돼지 사육상황과 향후 출하가능 물량을 판단하는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의 양돈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어 모돈 사육 마릿수만으로 실제 돼지고기 공급량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
  * 규모화된 기업을 중심으로 사양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생산비가 낮아지면서 동일한 사육기반에서도 과거보다 높은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따라서 모돈 사육 마릿수와 함께 자돈 생산, 비육돈 사육, 사료 투입, 출하 및 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 한국과 중국 간 돼지 관측자료 수집방식과 전망체계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함.

- 돼지 이력제 자료 등을 통해 월별 사육 마릿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향후 도축 마릿수와 돼지고기 가격을 월별로 전망하고 있는 국내 돼지관측체계를 소개함.
- 양국의 돼지관측 모두 현재의 사육상황에서 향후 출하·도축 및 가격을 전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음.
- 중국은 모돈, 자돈, 비육돈, 사료량, 출하량 등 생산단계별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사육 이력과 도축자료를 이용하여 향후 공급과 가격을 전망하고 있음.
- 향후 양국 간 관측방법과 전망모델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오리고기 소비는 지역과 조리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지역별 식문화 차이가 커 오리고기의 소비량, 소비부위 및 조리방법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 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오리고기 소비가 많은 반면 북부지역은 소비가 적은 편임.
- 베이징에서는 통오리를 이용한 북경오리 형태의 소비가 발달해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고유의 오리요리가 발달해 있음.

- 오리목, 오리머리 등 국내에서는 소비가 많지 않은 부위도 별도의 식품으로 널리 소비되고 있으며, 지역별 소비문화와 제품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품종에도 차이가 있음.
- 중국 오리산업은 우리나라와 같이 훈제오리 중심의 소비구조라기보다 통오리, 부분육, 부산물, 외식·가공식품 등 소비형태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
- 국내 오리고기는 과거 보양식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훈제오리 등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 중심으로 가정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산 오리고기도 열처리·가공제품 형태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 소비시장에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음.
- 한국에서는 HPAI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이 실시되고 있으며, 닭과 달리 오리가 감염 후 증상이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방역관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 국내 육용오리는 체리밸리 계통의 비중이 높으며, 종오리 단계부터 관련 종축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함.

양돈 연구팀 회의사진



가금 연구팀 회의사진



4.4. 중국 농업농촌부 축산국(축목업사)

○ 면담자: 钟永玲, 汤艳丽, 李伟克

○ 중국은 ASF 발생 초기 전국 단위의 집중적인 방역 및 이동통제를 실시한 이후 상시적인 방역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방역대상을 개별 농장에 한정하지 않고 생산농가에서 운송·유통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음.
  * 생돈 운송차량 신고, GPS를 활용한 이동경로 관리, 지정 이동경로 이용 등 운송단계의 관리 및 추적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2019년 이후에는 생돈을 소비지역까지 장거리 운송하기보다 산지에서 도축한 뒤 돼지고기 형태로 운송하는 방향으로 유통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 다만 신선육 선호 등 지역별 소비문화가 달라 생돈에서 돼지고기 중심 유통으로의 전환 속도에는 지역별 차이가 있음.
- 2019년 이후 농장 내 세척·소독, 감염축 및 폐사축의 무해화 처리, 살처분 보상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정부는 ASF 예방과 관리방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농가와 기업의 방역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음.
- 또한 ASF로 인한 돼지고기 생산기반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과 생산기반 회복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ASF 당시 살처분 보상액이 두당 약 800~1,500위안 수준이었음.
- 중국에서 돼지고기는 국민 식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으로, ASF 발생 이후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기반 확보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농장단위 방역은 정부가 모든 농장을 상시적으로 직접 점검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기업이 자체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일상적인 농장 방역은 기업의 자체 관리 비중이 높으며,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방역기준과 시설을 구축하고 있음.

- 다만 일정한 방역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청정지역 등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정부가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있음.

○ ASF 이후 돼지고기 생산능력을 신속하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기업과 선도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정부 지원이 생산능력과 투자여력을 갖춘 규모화 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면서 중국 양돈산업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대형기업은 정부 지원과 자체 자본을 활용하여 사육시설, 방역시설, 자동화 설비, 환경제어 및 종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의 양돈 생산구조도 소규모·분산형 생산에서 기업형·규모화 생산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 ASF 이후 생산기반 회복과 생산성 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진 반면 최근 돼지고기 소비 증가세는 둔화되면서 공급과잉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대형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높은 수준의 돼지고기 공급능력이 유지되고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과도한 생산능력을 조절하고 생산효율이 낮은 생산기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급안정을 추진하고 있음.

4.5. 중국축목업협회

○ 면담자: 马闯, 宫桂芬, 荆继忠, 廖文颖

○ 2019년 ASF 이후 중국 양돈산업은 소규모·분산형 생산에서 대규모 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ASF 발생 이후 돼지가격 상승으로 양돈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신규투자와 사육규모 확대가 이루어짐.
- 규모 확대와 함께 소독시설, 자동화설비, 환경제어시설 등 생산 및 방역 관련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소규모 농가도 존재하고 있으나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며, 가족농과 기업형 양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대형 양돈기업은 자본, 기술,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생산시설과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수익이 발생하면 생산시설, 방역시설, 환경제어 및 자동화설비 등에 다시 투자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생산구역·생활구역·소독구역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자체 방역수준도 높이고 있음.
- 이러한 투자가 반복되면서 대형기업의 생산성과 비용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농가와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 대형기업 중심의 규모화와 사양관리 및 자동화 기술 향상으로 돼지 생산비가 낮아지고 있음.

- 최근 중국의 돼지 생산비가 생체중 기준 kg당 약 12.7위안 수준이며, 생산효율이 높은 일부 기업에서는 11.1~11.2위안 이하까지 낮아진 사례가 있음.
- 규모화에 따른 생산관리 효율 향상과 사양관리 기술발전이 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전 조사자료〉

- 2024년 우리나라 비육돈 생산비는 생체중 100kg당 36만 5,890원(kg당 약 3,659원)으로 조사됨. 생산비 가운데 사료비가 18만 8,107원으로 51.4%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가축비가 약 20.1%로 뒤를 이음.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kg당 732원으로 전년(778원)보다 5.9% 하락함[1].
- 중국 농업농촌부의 시장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돼지 사육비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업계 평균은 생체중 kg당 약 15위안, 생산효율이 높은 농장은 14위안 이하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kg당 15위안을 2024년 원/위안 환율 약 190원 수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2,850원/kg, 생체중 100kg 기준 약 28만 5천 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임.
- 사료가격도 중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2024년 12월 중국의 비육돈용 배합사료 평균가격은 3.37위안/kg이었으며, 베이징 3.05위안, 톈진 3.14위안, 허베이 3.17위안/kg으로 조사됨.
  * 단순 환산 시 약 580~640원/kg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2024년 평균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 732원/kg보다 낮음.
- 한국과 중국의 돼지 생산비는 조사기준과 비용항목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국의 돼지 생산비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중국 돼지 생산비 비교(2024년 기준)**

구분	중국	한국	한국/중국
생체중 kg당 생산비	약 15위안/kg	3,659원/kg	-
원화 환산	약 2,850원/kg	3,659원/kg	약 1.28배
생체 100kg 생산비	약 28.5만원	36.6만원	약 1.28배
배합사료 가격	3.37위안/kg	732원/kg	중국이 낮은 수준

주 1) 중국 생산비는 중국 농업농촌부가 제시한 2024년 돼지 사육업계 평균비용 약 15위안/kg을 적용함.
2) 중국 생산비의 원화 환산에는 2024년 평균 원/위안 환율 약 190원을 적용함.
3) 중국 배합사료 가격은 2024년 12월 전국 평균이며, 한국은 2024년 연평균이므로 직접적인 동일기간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자료: 통계청 「2024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한국사료협회, 중국 농업농촌부 「2024년 12월 전국 축산물 및 사료가격 현황」.

1) 국가데이터처 2024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2025.05.27.)

○ 생산비가 낮은 대형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돼지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생산량이 빠르게 감소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과거에는 가격하락이 농가의 사육감축과 생산 감소로 연결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대형기업이 낮은 생산비를 바탕으로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의 돼지고기 공급은 과거보다 가격 변동에 대한 반응이 완만해지고 있으며, 대형기업의 생산비와 출하 상황이 중국 전체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음.

○ 중국의 고층형 양돈시설(돼지 아파트)은 대형화의 상징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으나 중국 양돈산업 전체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생산방식은 아님.

- ASF 이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ASF 이후 새롭게 등장한 생산방식은 아님.
- 지역의 토지・자연환경・방역여건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생산모델 가운데 하나임.
- 일반 양돈시설보다 방역・환기・분뇨처리・악취관리 등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일부 시설에서는 환경관리 측면의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도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중국 양돈산업의 규모화를 고층 양돈시설 확대 자체보다는 기업형 양돈 확대와 시설・기술의 현대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최근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해외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리고기는 국내 생산능력이 수요를 상회하면서 해외시장이 중요한 판매처로 확대되고 있음.

- 중국 내 오리 생산여력이 높은 가운데 주변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음.
- 검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수출요건을 충족한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음.
- 한국에서 중국산 열처리 오리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측도 한국의

오리고기 소비구조와 중국산 제품의 시장 확대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4.6.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 면담자: 周林, 陈建国, 沈思伟, 李文学

○ 중국의 돼지산업 관련 정책연구는 크게 돼지고기 생산능력 조절과 고품질 발전의 두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생산능력 조절은 돼지고기 수요에 맞추어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과잉과 부족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고품질 발전은 단순히 생산량을 확대하기보다 생산효율 향상, 품질 개선, 브랜드화 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중국농업과학원 연구진은 돼지고기 시장과 축산물 소비구조를 분석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결과가 농업농촌부의 축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중국은 돼지고기 생산능력을 조절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모돈 사육 마릿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모돈 마릿수 목표는 3,750만 두 수준이며, 이전에는 약 3,900만 두, 그 이전에는 약 4,100만 두 수준이었음.
- 모돈 목표를 고정된 수치로 유지하기보다 돼지고기 수요와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모돈 적정 사육규모를 산정할 때 정부와 연구기관이 소비량, 생산성, 산업구조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가 중장기 축산업 발전계획 등에 반영되고 있음.

○ 최근 모돈 목표를 낮추고 있는 배경에는 돼지고기 소비 증가세 둔화와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
- 중국에서 돼지고기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육류 가운데 하나이나 고령화, 출생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체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건강과 영양을 중시하는 소비가 확대되면서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돼지고기 대신 쇠고기, 가금육 등 다른 육류를 선택하는 소비도 증가하고 있음.

- 외식 확대와 식생활 다양화 역시 돼지고기 중심의 육류 소비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모돈 마릿수와 돼지고기 생산량 간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 중국의 돼지 생산은 규모화된 경영주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주체(규모화 농장)가 중국 돼지산업에서 약 73%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규모화 과정에서 사양관리와 종축기술이 개선되고 있으며, 모돈 생산성을 나타내는 PSY도 약 26~28두 수준까지 높아진 사례가 있음.
- ASF 발생과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생산성이 낮은 농가나 생산기반이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대규모 기업의 비중이 확대된 점도 중국 전체 생산성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거와 동일한 돼지고기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돈 마릿수가 감소할 수 있어, 중국 정부가 모돈 목표를 낮추더라도 실제 돼지고기 생산능력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 따라서 중국 돼지고기 수급을 전망할 때 모돈 사육 마릿수 변화만으로 향후 생산량을 판단하기보다는 PSY 등 생산성 변화와 규모화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 돼지가격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소비 증가세 둔화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공급 확대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돼지고기 소비는 과거와 같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 반면, 규모화된 생산주체의 비중 증가와 PSY 향상으로 돼지고기 생산능력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에 중국 정부는 수요에 맞추어 모돈 사육규모를 조정함으로써 과도한 생산능력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모돈 목표는 정부가 제시하는 관리목표 성격이 강하며, 개별 기업의 실제 생산조정은 시장상황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임.
- 이에 중국의 모돈 조절정책을 정부가 개별 농가의 생산량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보기보다는, 정부가 적정 생산능력의 목표를 제시하고 시장과 기업이 이에 맞추어 생산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냉동육 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돼지고기 시장 규모와 비교할 때 비축물량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시장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할 수 있으나 중국 전체 소비량에 비해 정부 비축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임.
- 일반적인 돼지고기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 비축물량보다는 대규모 생산기업이 시장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육 및 출하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다만 ASF와 같이 생산기반 자체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에는 기업의 자율적인 생산조정만으로 단기간 공급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돼지고기 수입국 가운데 하나이지만 중국 전체 돼지고기 소비규모와 비교하면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음.
- 최근 중국의 연간 돼지고기 수입량이 약 100만 톤 수준인 반면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규모는 이를 크게 상회하여, 전체 시장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임.
- ASF 직후와 비교하면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기반이 회복되면서 수입 의존도도 낮아지고 있음.
- 수입 돼지고기 가운데에는 중국 내 수요가 존재하는 뼈가 붙은 부위, 머리, 내장 및 기타 부산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지만 중국에서는 식용수요가 높아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중국의 수입량 변화는 국제 돼지고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중국이 주요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면 해당 국가의 수출수요가 감소

하면서 현지 돼지고기 가격에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중국 내 가격에 대한 수입육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중국의 수입수요 변화가 국제 돼지고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 중국은 돼지고기의 특정 부위에 소비가 집중되는 한국과 달리 머리, 족발, 껍질, 내장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부위를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돼지 족발과 머리 등 일부 부산물은 해외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지만, 중국에서는 식재료나 가공제품으로 활용되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돼지 족발의 경우 껍질과 콜라겐 등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있어 중국 내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소비구조는 중국이 일반 정육뿐만 아니라 부산물을 일정 규모 수입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음.
- 지역별로 선호하는 돼지고기 특성에도 차이가 있음. 윈난성, 구이저우성 등 일부 서남부 지역에서는 지방층이 두꺼운 돼지고기를 이용하는 전통요리가 발달해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은 돼지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 반면 대도시에서는 건강과 체중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 함량이 적은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를 분석할 때 전국 평균뿐만 아니라 지역별 식문화와 부위별 소비 특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연구진은 미국·유럽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육류 소비구조 변화를 참고하여 중국의 향후 소비변화를 전망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은 중국보다 먼저 소득 증가, 고령화, 저출산 등의 구조변화를 경험한 국가로, 중국의 향후 육류 소비패턴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비교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특히 한국의 과거 20~30년간 육류 소비에서 어떤 구조적 변곡점이 발생했는지, 소득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축종별 소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관심

을 보이고 있음.

- 한국 측에서는 국내 육류 소비가 장기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최근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돼지고기도 향후 정체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공유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축산물 소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큼.
- 소득 증가 초기에는 축산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도달하면 축산물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품질, 건강, 편의성 중심으로 소비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육류 소비에서는 돼지고기가 여전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쇠고기와 가금육의 소비가 확대되면서 육류 간 대체가 진행되고 있음.

-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다고 인식되는 육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돼지고기 소비는 감소 또는 정체되는 반면 쇠고기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금류 소비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의 돼지고기 수요를 전망할 때 돼지고기 자체의 가격과 소득뿐만 아니라 쇠고기, 가금육 등 대체 육류의 소비변화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돼지고기 수출은 제한적이며 홍콩·마카오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중국은 돼지고기 생산규모가 매우 크지만 대부분이 내수시장에 공급되고 있어 해외수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수출물량 가운데 홍콩과 마카오로 공급되는 물량도 중국 통계상 수출로 포함되고 있으며, 일부 동남아지역으로의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중국 돼지고기 산업은 수출 중심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 및 수급정책 역시 국내 가격과 공급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

농업과학원 농업정보연구소



식품·영양발전연구소 내부



4.7. 시사점

○ 중국 양돈산업은 ASF 이후 대형기업 중심의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모돈 등의 사육 마릿수와 더불어 실제 공급 능력(생산성) 향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중국은 모돈 사육 마릿수를 주요 생산능력 조절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PSY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모돈이 감소하더라도 돼지고기 공급량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중국 돼지고기 수급을 판단할 때 모돈뿐만 아니라 자돈·비육돈·출하·도축, 생산성, 생산비 및 대형기업의 생산동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생산비가 낮은 대형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돼지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고 있어, 가격변화가 생산조정으로 이어지는 관계도 과거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돼지고기 자급률이 높아 수입육이 중국 내 전체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시장규모가 커 중국의 수입수요 변화는 국제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국 내 생산 감소나 ASF 등 질병 발생으로 수입이 확대될 경우 미국·EU·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에서 구매경쟁이 높아져 국내 돼지고기 수입가격과 물량 확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월별 수입실적 자체보다 생산·소비 격차, 돼지가격, 질병 발생, 생산비 및 기업의 생산계획 등을 통해 향후 중국의 수입수요가 변화할 가능성

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중국은 베이징 카오야, 난징 염수오리, 장야, 라오야탕 등 지역별 오리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고, 정육뿐만 아니라 목, 날개, 발, 혀, 근위, 내장, 피 등 거의 모든 부위를 상품화하고 있음.

- 이에 오리 한 마리에서 외식용 정육, 가공제품, 간식·안주제품 등 다양한 최종상품을 생산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 반면 국내는 훈제오리·로스·백숙 등에 소비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향후 부분육, HMR, 간식, 안주제품 등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한 마리당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오리 가공품 판매부스



양념 오리목 가공품



양념 오리혀 가공품



양념 오리머리 가공품



○ 최근 중국 오리산업은 생산 확대에 비해 소비 증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병아리 및 생체 오리가격 하락과 업계 수익성 악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공급과잉은 중국 업체들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유인

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지 업무협의에서도 오리고기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국내에서도 중국산 열처리 오리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내 출하량, 병아리, 생체 오리가격, 수출단가 및 가공업체의 수익성을 주요 선행지표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오리산업도 생산 확대보다 가공, 소비, 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오리산업도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생산능력 조절, 생산비 절감, 가공 자동화, 품질 향상, 신제품 개발 및 브랜드화를 주요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특히 기존 전통음식과 간편식・소포장・간식제품을 연계하여 새로운 소비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국내 역시 생산량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 전 부위 활용 확대 → 가공제품 다양화 → HMR・간식시장 확대 → 브랜드・프리미엄화를 통해 소비기반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이 중요함.

○ 종합적으로 중국 축산업 모니터링 범위를 생산량 중심에서 산업구조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조사에서는 돼지와 오리 모두 생산량만으로 향후 수급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확인됨.
- 돼지는 규모화・생산성 향상으로 사육 마릿수와 실제 공급능력 간 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오리는 높은 생산능력과 함께 가공・부위 활용・수출이 수급조절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향후 중국 축산업 모니터링은 사육, 생산량, 생산성, 생산비, 대형기업 동향, 소비구조, 수출입, 가축질병 및 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